

2016년 11월 29일, 구좌읍 종달리 종달리마을회관, 송정희 조사.
차두선(여, 1923년생, 구좌읍 종달리)

[제보자] 저, 사둔치, 소금 풀레 종다린 소금해낫주게. 소금 풀레 간 오다네, 양사둔이이
잇주게. 그 어른허곡 우리 시어멍허곡 소금 풀아오단 베가 찌여불언 못 오랏어.
경헝

“옵서. 사둔이랑 나랑 걸영 가게.”

“경 헝세.”

헝, 경 헝 몽덩이 짚으곡 건장건장 오단, 오는디 시흥리 흐썰 강 뭍 허주게.
허난 아멩아멩 가면 거기 흐썰 도체비 나는 데우다. 도독나곡 경허난 이젠 도독
나는 디 이것이 도독나는 디우다. 허연 폭격곡 도독놈이엔 몽덩이로 사둔을 문
죽여.

“나우다. 나, 나 아니꽈? 나.” (웃음)

- 핵심어 : 구좌읍 종달리, 시흥리, 사둔, 소금, 도체비, 도독